GLOBAL
EQUITY
STRATEGY

2026. 8. 4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enior Analyst
juhn21@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8월 중국 투자전략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는 이유

- 주식시장 진단: 7월 상해 -6.4%, 홍콩H +13.9%, 기술주 급락
- 핵심 이슈: 경기 저점 통과 중,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 시장 확대
- 시장 전망: 신중한 낙관론 유지, 턴어라운드와 차이나 테크 대표주 주목

주식시장 진단: 기술주 주가 조정, 홍콩증시는 반등

- 7월 중국 주식시장은 테크 중심의 주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상해와 CSI 300은 각각 -6.4%, -7.9%를 기록하였다. IT 섹터가 패닉 셀링 물량이 출회되며 30.7% 급락한 반면에 부진했던 홍콩H는 플랫폼과 전기차의 급등을 기반으로 13.9%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7월 기술주의 조정은 글로벌 AI 버블 논쟁의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기술주 급락세는 다소 진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하반기 매크로 점검: 2분기 저점 통과

- 당사는 중국 경제가 견고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분기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전략 산업 품목의 경쟁력 상승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결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7월 제조업 PMI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6월 대비 상승(국가통계국과 Rating Dog 평균 기준)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둔화에도 대외 수요가 견고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차이나 테크 사이클: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

-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속되고 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수출, Kimi K3 AI 모델 출시는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화를 상징하고 있다.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 시장 확장은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이다. CXMT에 이어 휴머노이드, 항공우주 대표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중국 반도체는 Bottleneck과 시장 점유율 확대 관점에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 휴머노이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하드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보틱스 상용화를 선점하는 Top-tier로서 주목할 가치가 높다.

투자전략: 조심스러운 낙관론 유지

- **8월 중국 주식시장은 지지선 설정과 함께 완만한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

주식시장의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분기 빅테크 기업 실적발표가 마무리되면서 AI 투자 버블에 대한 논쟁 강도는 낮아질 것인 반면에 차이나 반도체/휴머노이드 대표기업의 상장에 따라서 중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8월 미-중 협상 경과를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관계 복원(농산물 수입확대, 희토류 수입 안정화, 미국 빅테크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중 데탕트가 확장될 수 있다. **중국 포트폴리오 키워드는 『① 실적 턴어라운드(Turn around), ② 병목(Bottlenecks), ③ 상용화(Monetization)』 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주식시장 진단

기술주 주가 조정

글로벌 AI 버블 논쟁

- 7월 중국 주식시장은 테크 중심의 주가 조정 이후 지지선을 타진하며 마무리되었다. 상해증시와 CSI 300은 각각 -6.4%, -7.9%를 기록하였는데 IT 섹터에서 패닉 셀링 물량이 출회되며 30.7% 급락한 반면에 상반기 부진했던 홍콩H는 플랫폼과 전기차의 급등을 기반으로 13.9%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기술주의 주가 조정은 글로벌 AI 버블 논쟁을 반영한 것이다. 2분기 실적시즌을 통해서 (1) 반도체 밸류체인의 단기 급등 부담, (2) AI 설비투자(Capex) 고점 논란, (3) 중국 CXMT 등의 공격적인 설비투자와 애플의 중국 메모리 구매 추진으로 공급과잉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국 주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극단적인 AI 경계심이 완화되며 기술주 급락세는 다소 진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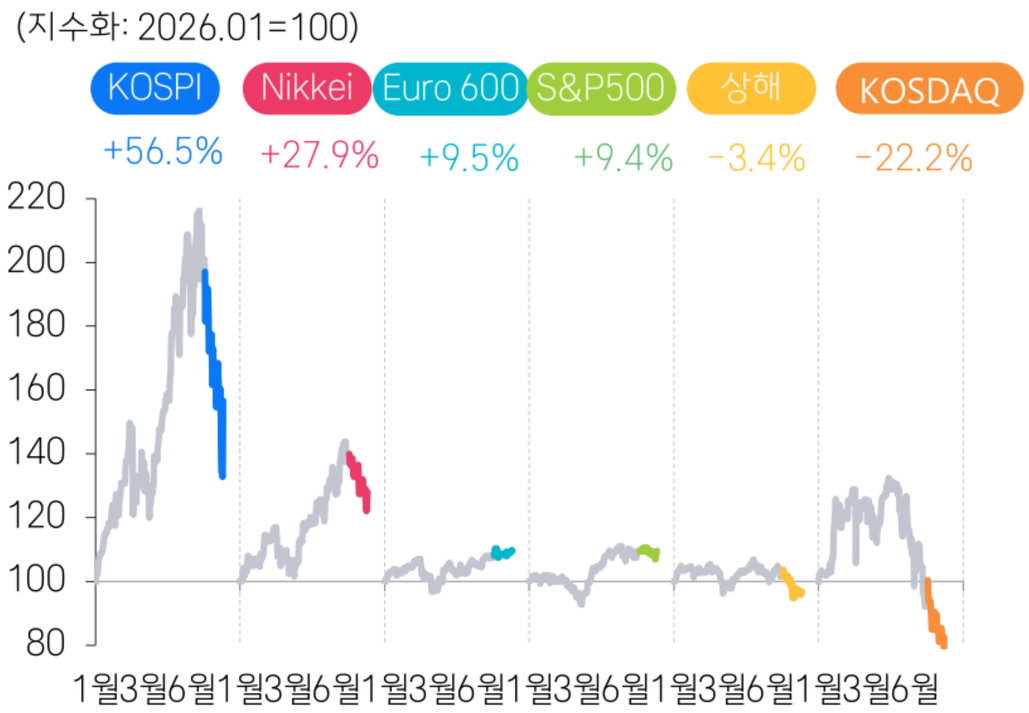
- 7월 27일 중국 D램 1위 업체 CXMT가 과창판에 상장되었다. 글로벌 D램 쇼티지 국면에서 국산화 대체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CXMT에 대한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8.66위안 공모가 대비 첫날 466% 급등하며 출발한 CXMT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 3.6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상장주식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다. CXMT에 이어 8월 휴머노이드 업체 유니트리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차이나 테크에 대한 주식시장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주요 주가 추이

구분 (%)	'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연초 이후 (7.31일 기준)
상해지수	3.8	1.1	(6.5)	5.7	(1.1)	0.6	(6.4)	(3.4)
홍콩H	4.5	(4.9)	(5.5)	3.7	(3.0)	(10.3)	13.9	(3.4)
SMIC	5.5	(9.8)	(25.4)	39.8	15.1	9.6	(29.3)	(11.5)
알리바바	18.5	(15.5)	(16.7)	5.9	(4.1)	(23.2)	26.0	(18.1)
나우리지 테크놀로지	88.5	154.2	20.6	25.2	83.8	31.9	(53.1)	722.9
S&P500	1.4	(0.9)	(5.1)	10.4	5.2	(1.1)	(0.1)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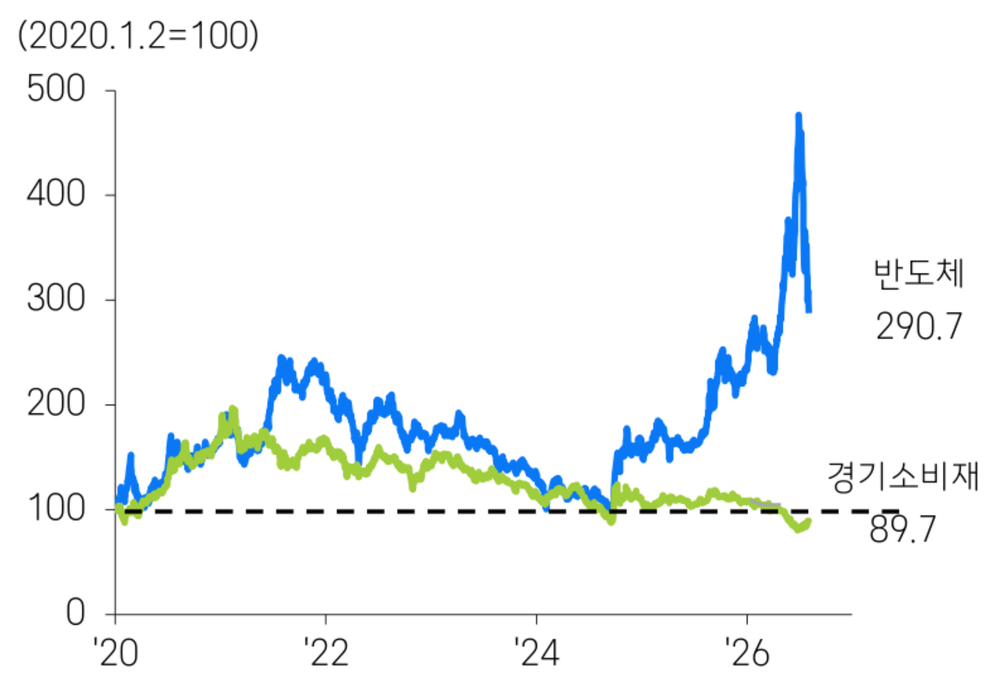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글로벌 주요증시 추이: 아시아 테크 조정 국면



참고: '26년 7월 3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7월 테크 조정 vs. 소비재 반등



참고: '26년 7월 31일 기준
자료: Wind,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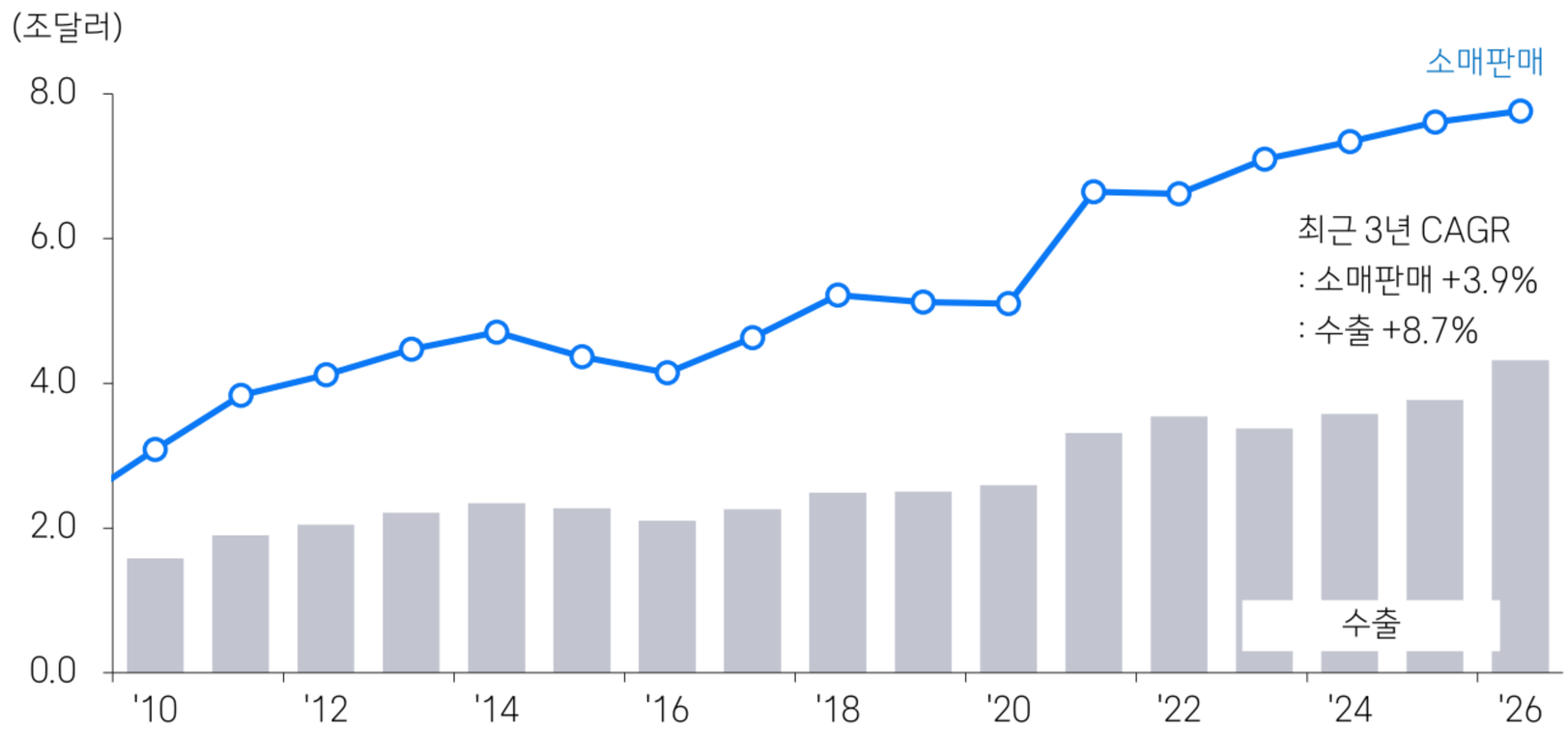
매크로 점검

2분기 경기저점, 점진적 회복 기대

부양 의지를 나타낸 7월 정치국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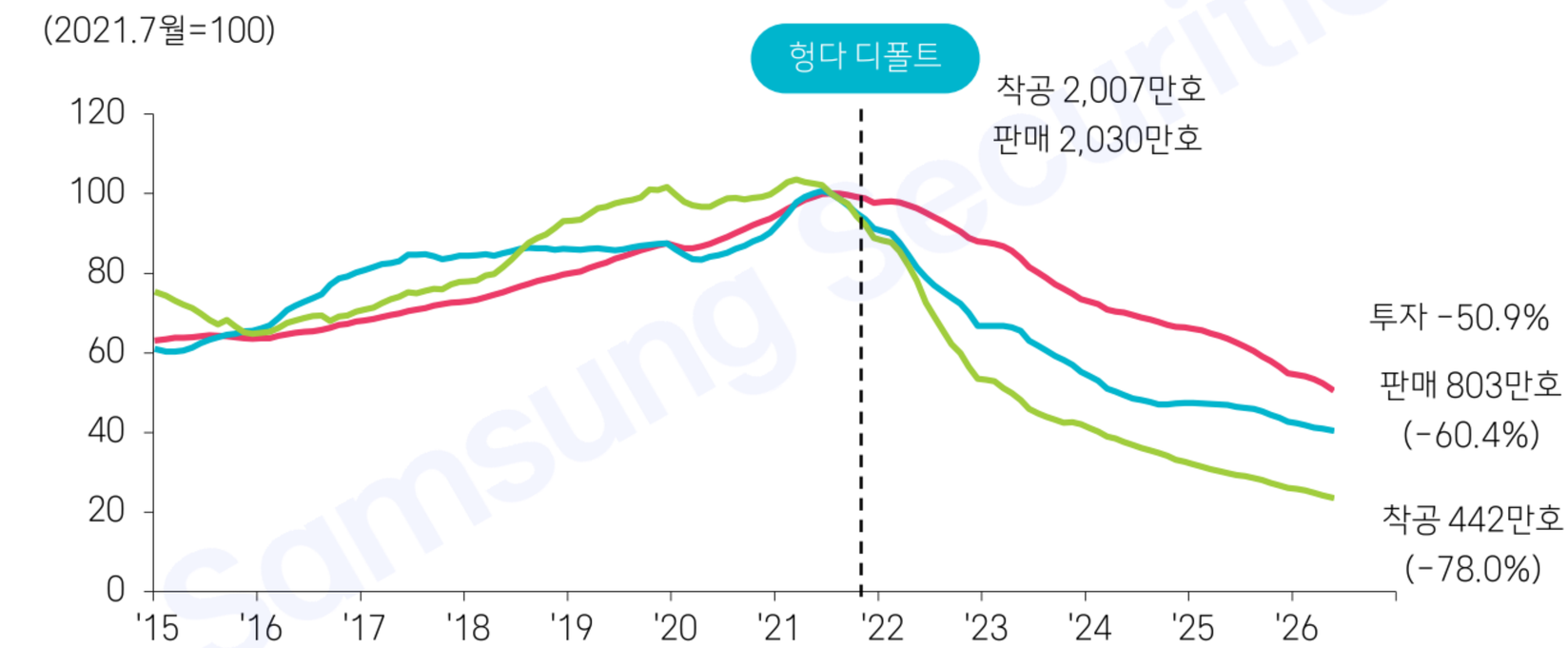
- 중국 2분기 GDP는 전년 대비 4.3%로 1분기(5.0%) 대비 부진했으며, 직전분기 대비로도 0.9%에 그치면서 지난 '2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 산업 생산 데이터를 보면, 화학 업종은 1분기 8.2%에서 2분기 1.9%, 비철금속은 2.5%에서 -3.0%로 하락했으며, 그 영향으로 전체 산업 생산은 6.1%에서 4.6%로 둔화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부진과 이구환신 정책의 기저 효과로 가계 소비가 부진했고, 재정지출도 지방정부 부채 상환의 여파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관영 보도자료를 보면, "경제 운행 중 나타난 어려움과 도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으며, "카운터시클리컬 조정 역량을 강화한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제때 내놓겠다"와 같은 문구도 추가되었다. 구체적인 부양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가 정책은 재정보다 통화(금융) 정책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회의에서 통화정책은 "적시에 조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재정정책은 "지출과 채권 자금 사용을 가속화"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양회에서 발표한 재정 정책을 조속히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추가 정책은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다 확인한 이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 당사는 중국 경제가 견고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분기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전략 산업 품목의 경쟁력 상승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결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7월 제조업 PMI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6월 대비 상승(국가통계국과 Rating Dog 평균 기준)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둔화에도 대외 수요는 견고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 또한, 7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감안하면 2분기 중 감소로 전환한 인프라 투자의 개선이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재정 집행 가속화를 언급하면서 산업 고도화(과학기술 자립)과 중대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력망, 데이터센터망, 통신망 등의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가계 소비는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 중이며 인프라와 달리 정책 지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차 고조된 미국-이란 갈등과 정책 시차를 고려하면 8월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중국 부동산 경기 바닥 타진 전망: 『OECD 평균 주택시장 조정 5.5년 소요』** 당사는 하반기 중 중국 주택 경기의 바닥이 타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주택지표는 OECD 주택버블 평균 조정폭과 기간에 접근하고 있다. 주택 경기가 Peak point였던 '21년 2분기에 비해서 중국 부동산 지표는 6월말 기준 ① 투자, ② 판매, ③ 신규주택 착공은 각각 -50.9%, -60.4%, -78.0%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주택 공급의 적정수준을 8백만~1천만호로 추정할 때 착공은 현재 442만호 수준으로 하락하여 언더슈팅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출 호조세와 내수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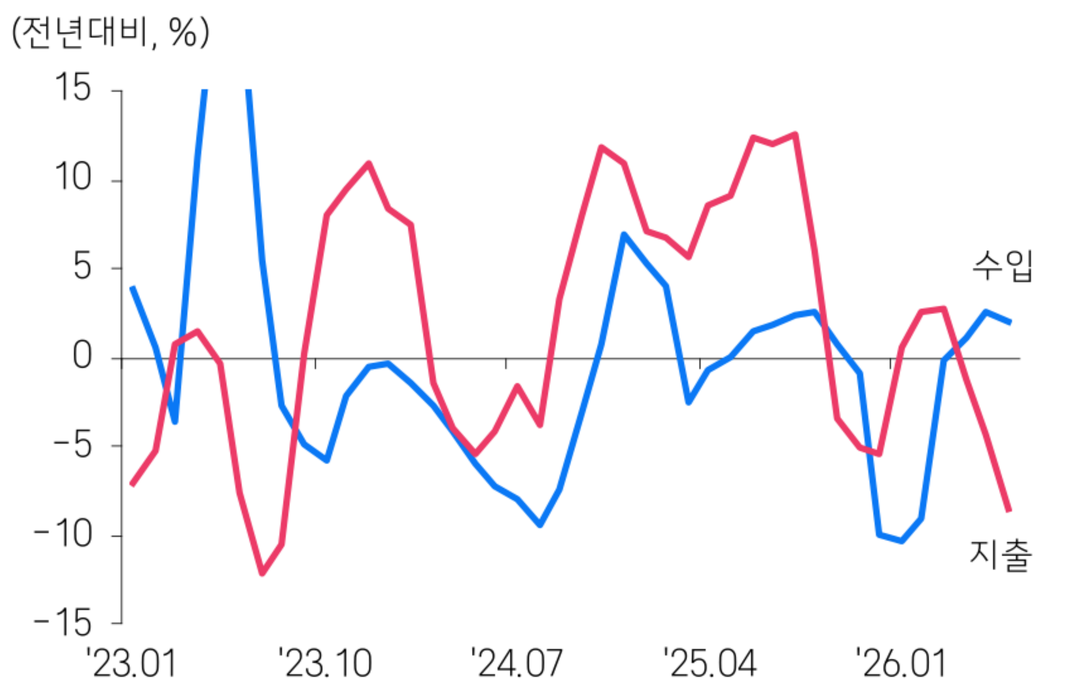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추정

중국 주택지표, 신중한 바닥 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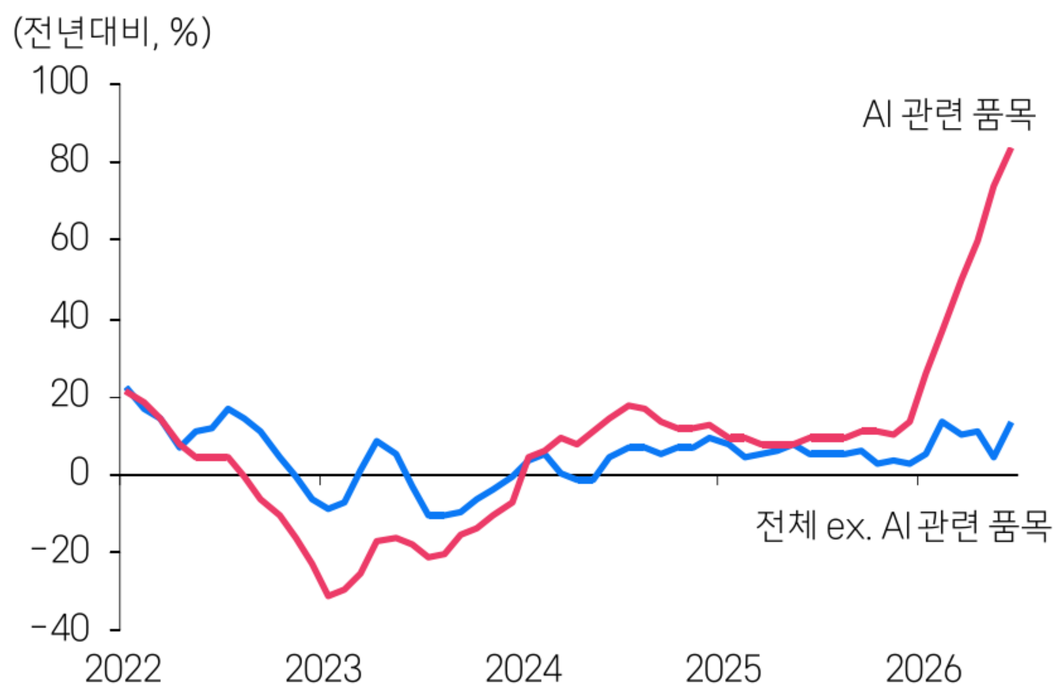
참고: '26년 6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26년 2분기 중국의 재정 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출은 감소



참고: 일반공공예산과 정부성기금의 합,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중국 재정부, 삼성증권

중국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 지속 중



참고: AI 관련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부품의 합.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차이나 테크의 공습

첨단기술 패권전쟁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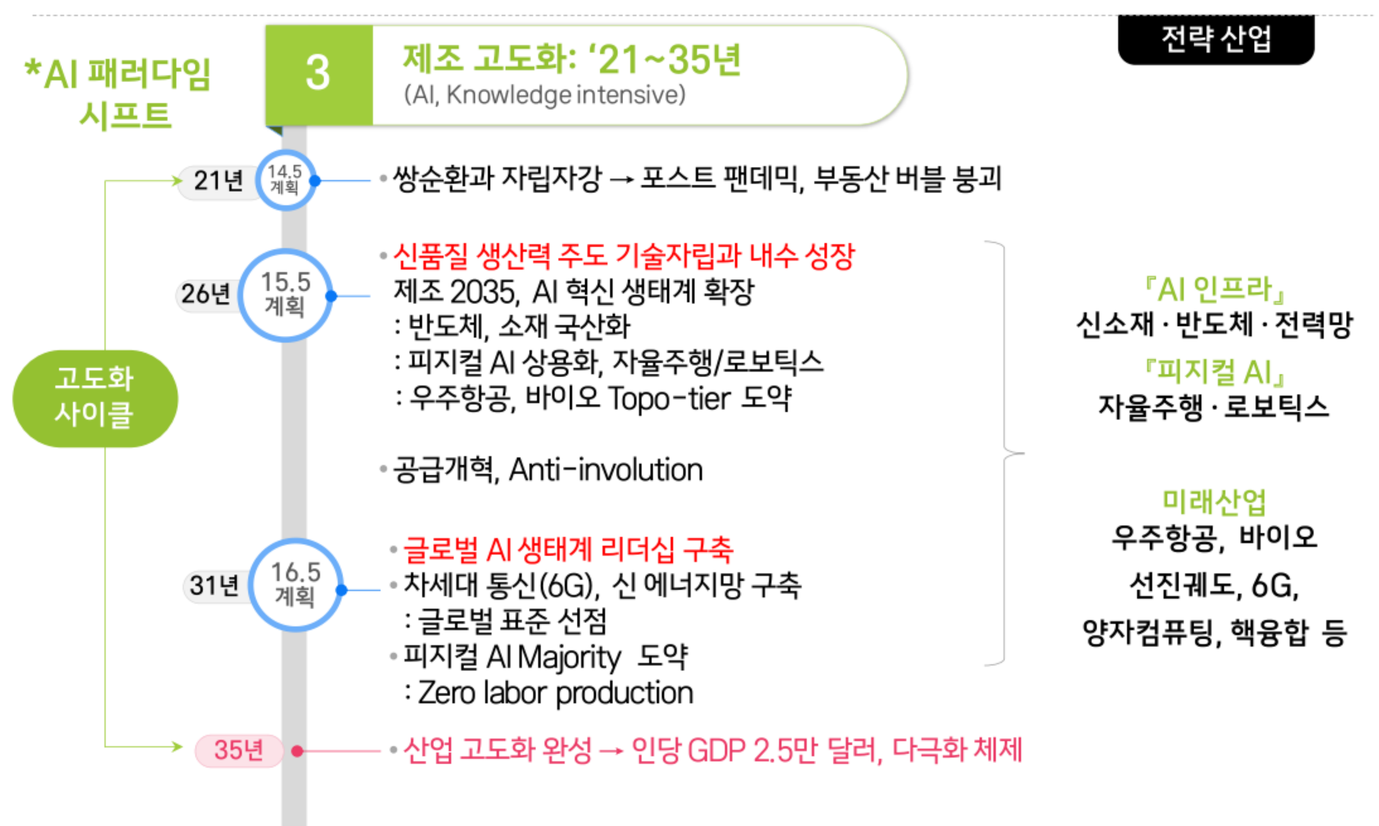
  올해 중국 자동차 수출, Kimi K3 AI 모델 출시는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화를 상징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52.1% 급증한 527.8만대를 기록하였는데 올해는 1,200만대 수출이 유력하며 이는 '24년 자동차 수출 Top-10 국가의 수출량 2,390만대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공급자로의 부상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7월 문샷 AI의 신규모델 Kimi K3가 공개되면서 미국 오픈 AI, 앤트로픽과 함께 중국 AI모델이 프론티어 레이스의 선두자리를 경쟁하는 Kimi 모멘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차이나 테크의 글로벌 시장 확장은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이다. 중국은 산업화 후반기에 해당되는 '21~35년을 산업 고도화를 완성하는 구간으로 설정하였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15.5 경제규획('26~30년)기간 차이나 AI 테크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미-중 G2 체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과 투자 몰입을 하는 포화경제를 진행해왔다. 2000년대 기간산업과 2010년대 친환경 밸류체인(태양광/전기차/배터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15.5 경제규획에서 중국 정부가 선정한 9대 미래산업과 8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범위는 차이나 테크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과 상용화 단계를 감안할 때 차이나 테크의 확장성은 AI 반도체/장비,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우주항공과 바이오 산업에서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CXMT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항공우주 대표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중국 반도체는 Bottleneck과 시장 점유율 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휴머노이드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하드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보틱스 상용화를 선점하는 Top-tier로서 주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신기술의 상용화는 매우 폭발력이 강한 테마이다.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14~20년)과 전기차/배터리('21~23년) 테마가 시장을 압도하는 주가 리레이팅을 보여준 것처럼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의 상용화가 주식시장에서 탄력있는 주가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이다.

15.5 중국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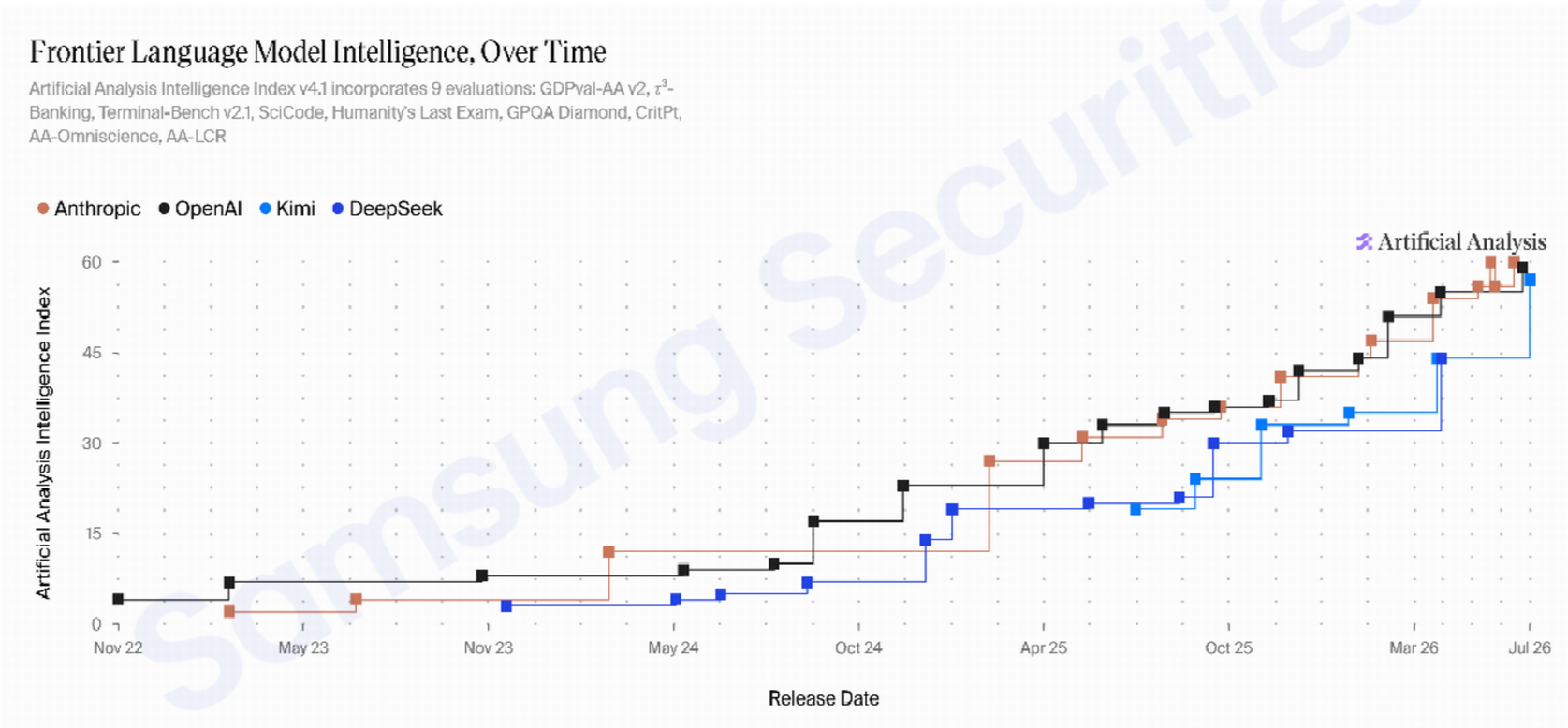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5대 전략 산업 글로벌 경쟁력 비교

경쟁력 순위 (중국 위치)	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로보틱스
	2위	5위	2위	1위	2위
1	US: LLM, 시장규모 1위	US: 설계, 장비, IP 강점	US: 파이프라인, 기초 1위	China: Capa, 매출 압도적 1위	US: AI SW 강점
2	China: 논문, 특허, 데이터 1위	대만	China: 임상, CRO, 데이터 1위	캐나다	China: 설치대수, 부품 1위
3	싱가포르	한국	EU	US	EU
4	영국	일본	일본	독일	일본
5	프랑스	China: 시장, 전력, 패키지 강점	영국	한국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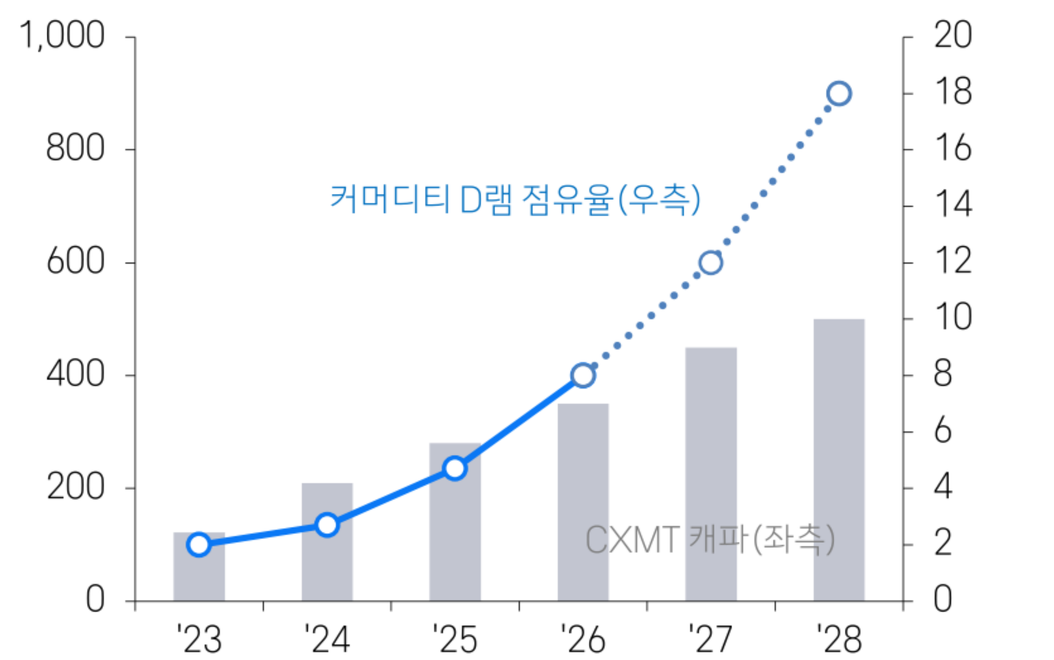
자료: AI = Tortoise index /바이오 = Belfer CETI /로보틱스 = IFR, Yole /반도체 =설계, 생산, 장비 점유율/배터리 =생산량, 기술력, 정책지원 기준

중국 프론티어 AI 모델 성능, Top-tier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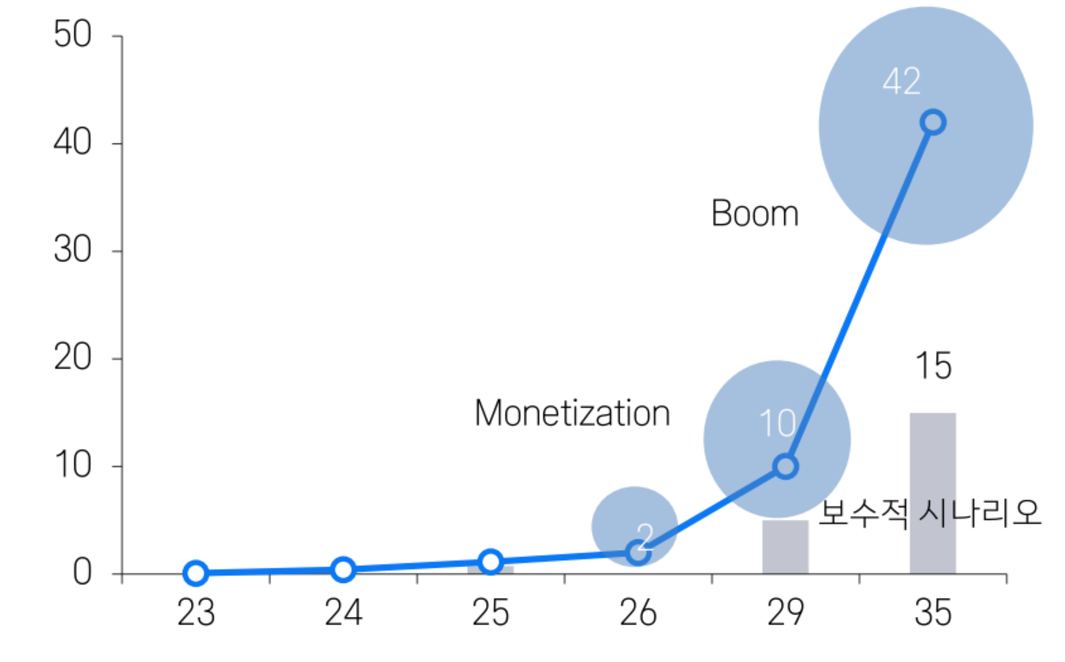
참고: '26년 7월 기준
자료: artificial analysis, 삼성증권

중국 반도체의 희망, CXMT 상장 완료



자료: 상해거래소, Omdia, 삼성증권

중국이 주도하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예상보다 더 큰 성장



자료: 글로벌 IB,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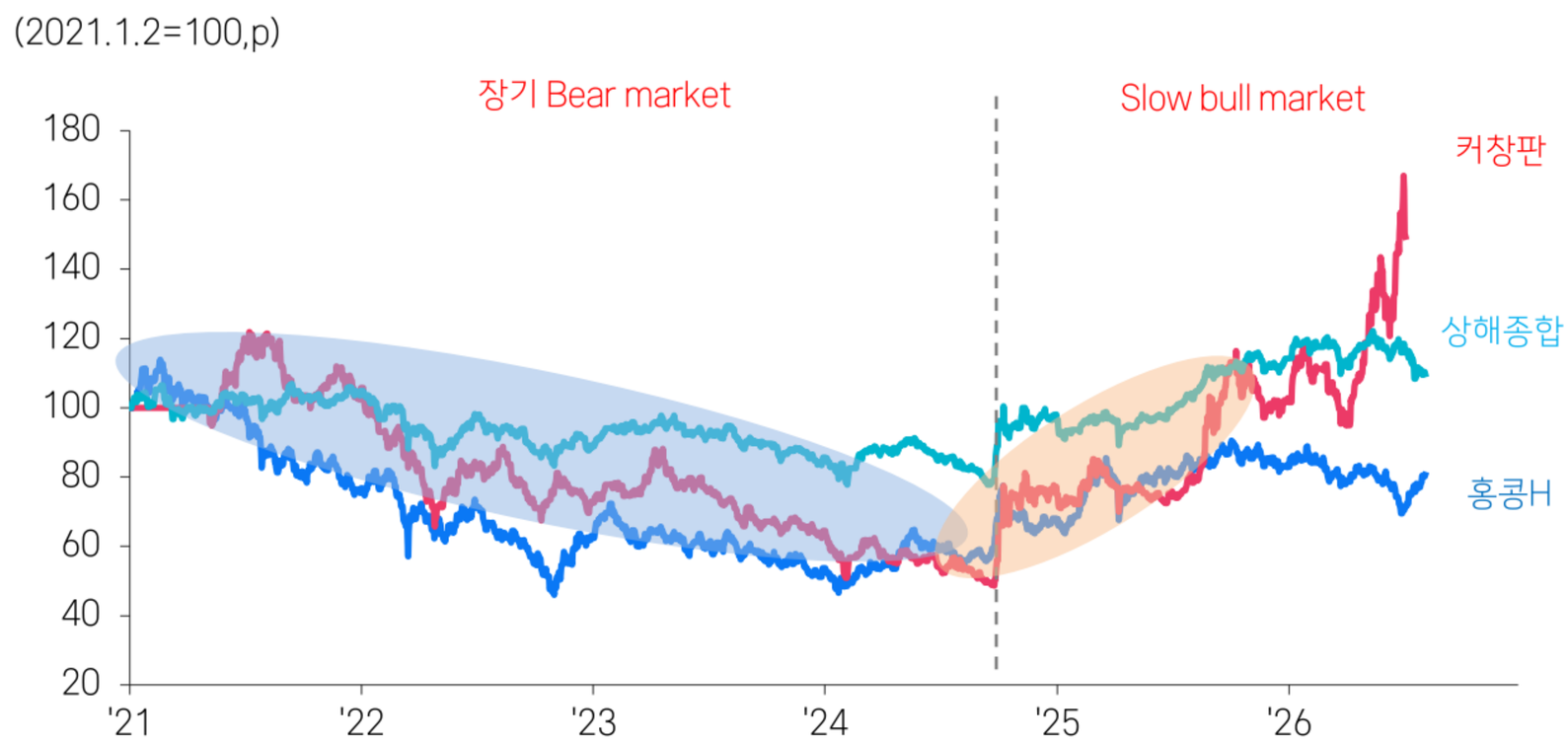
투자 전략

조심스러운 낙관론 유지

리스크 완화 예상

- **8월 중국 주식시장은 지지선 설정과 함께 완만한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 우리가 중국 증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유지하는 이유는 (1) 하반기 펀더멘털 개선, (2) 시장 리스크 완화, (3) 차이나 테크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 먼저, 중국 펀더멘털은 온건한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중국 본토 증시와 테크 섹터는 실적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상해, CSI 300의 경우 올해 EPS 증가율은 각각 +17.0%와 +20.6%로 최근 5년래 최고치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15년 유동성 버블붕괴 이후 공급 과잉과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위기로 인해 저조한 EPS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전환과 테크 투자 확대로 인해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하반기 중국 내수 반등과 부동산 바닥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 8월 이후 주식시장의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분기 빅테크 기업 실적발표가 마무리되면서 AI 투자 버블에 대한 논쟁의 강도는 낮아질 것인 반면에 차이나 테크를 대표하는 CXMT와 유니트리 등의 상장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강화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협상 경과가 관심사이다. 9월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 무역관계 복원(농산물 수입확대, 희토류 수입 안정화, 미국 빅테크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중 미니 데탕트가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첨단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 **중국 포트폴리오 키워드는 『① 실적 턴어라운드(Turn around), ② 병목(Bottlenecks), ③ 상용화(Monetization)』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하반기 중국 경기는 점진적인 내수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기업과 전기차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강화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실적 고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는 AI Bottleneck 밸류체인(반도체, 소재, 전력망)과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로보틱스, 자율주행, 우주항공/바이오를 최우선 섹터로 제시한다. CXMT와 유니트리로 대표되는 차이나 AI 테크주의 IPO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IPO 이벤트는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주가 모멘텀을 지지할 것이다.

팬데믹 이후 본토-홍콩 주식시장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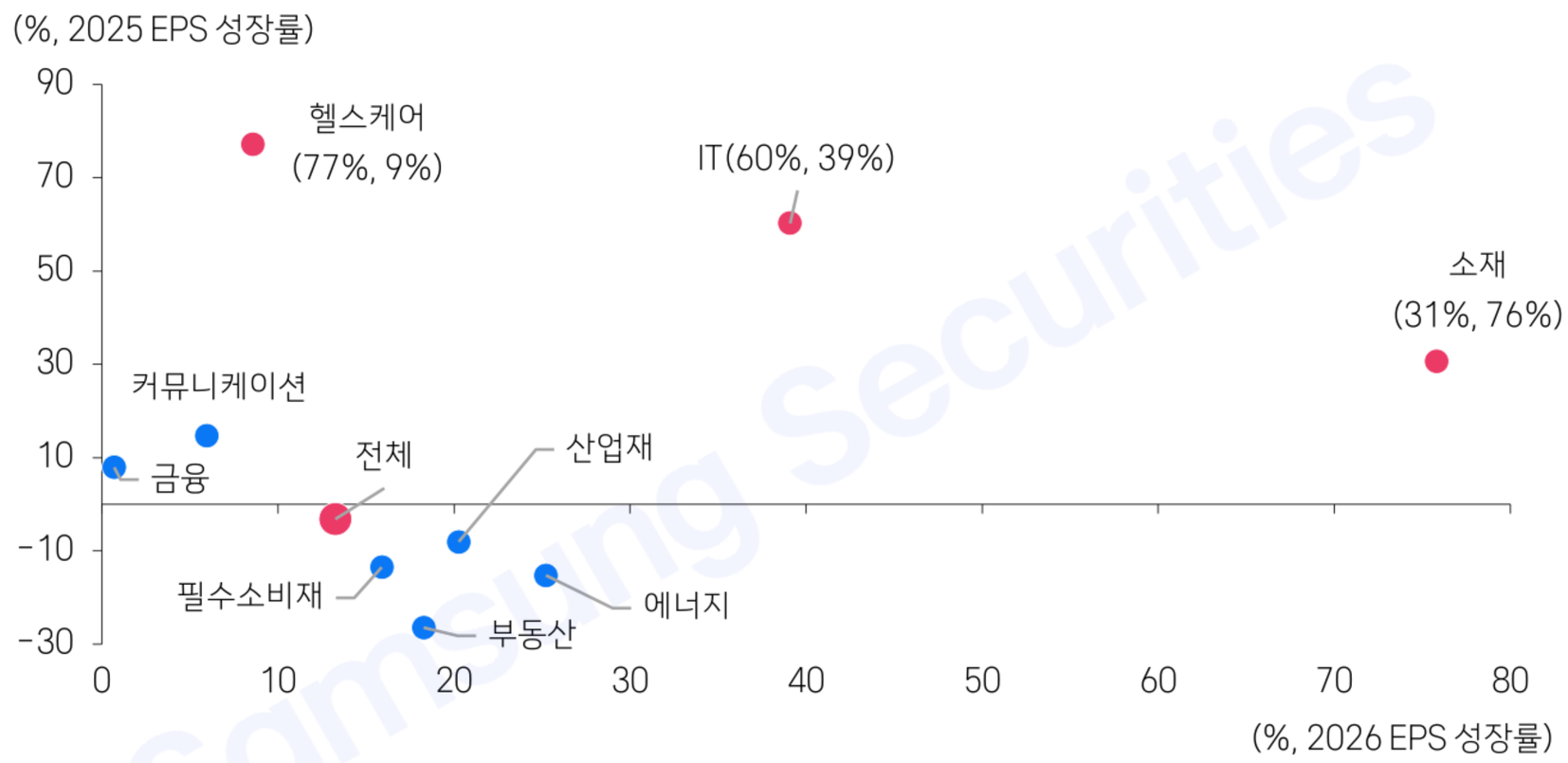
참고: '26. 8. 3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요 증시 밸류에이션 및 실적 전망

구분	밸류에이션 (배)		EPS 성장률 (%)		
	Fwd PE	Fwd PB	'25년	'26년	26년 연초 예상
S&P500	19.9	4.7	13.6	27.7	15.6
MSCI ACWI	16.7	3.2	10.2	29.7	14.7
MSCI 신흥	9.6	1.8	10.5	65.3	18.2
MSCI 중국	10.7	1.2	(3.2)	13.3	12.7
상해종합	12.8	1.3	1.6	17.0	8.9
CSI300	13.4	1.6	9.7	20.6	10.6
홍콩H	9.7	1.1	(0.2)	4.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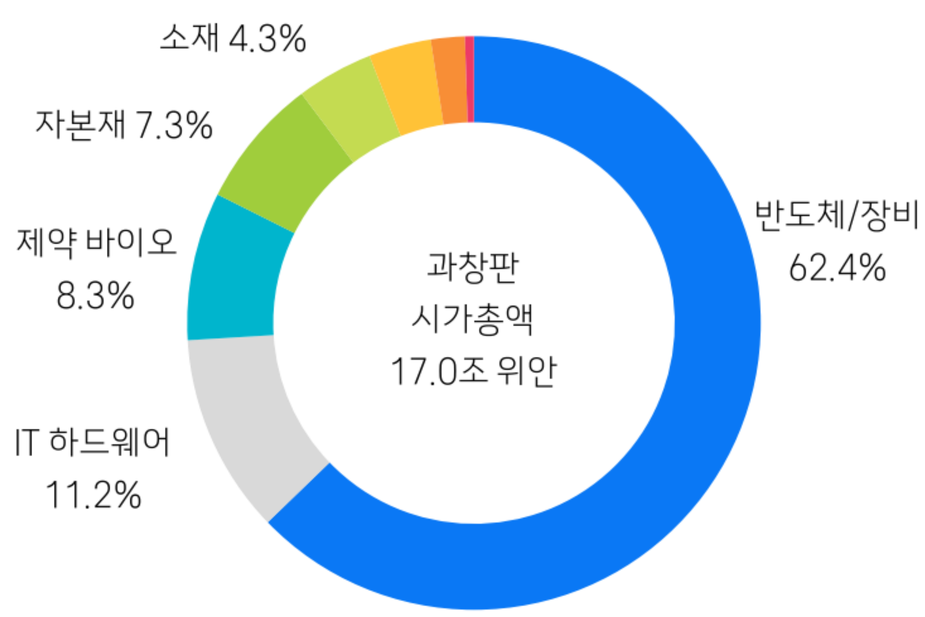
참고: '26년 7월말 기준
자료: 12개월 Fwd P/E는 Bloomberg, EPS 성장률은 LSEG Workspace, 삼성증권

IT 섹터 실적 전망치 상향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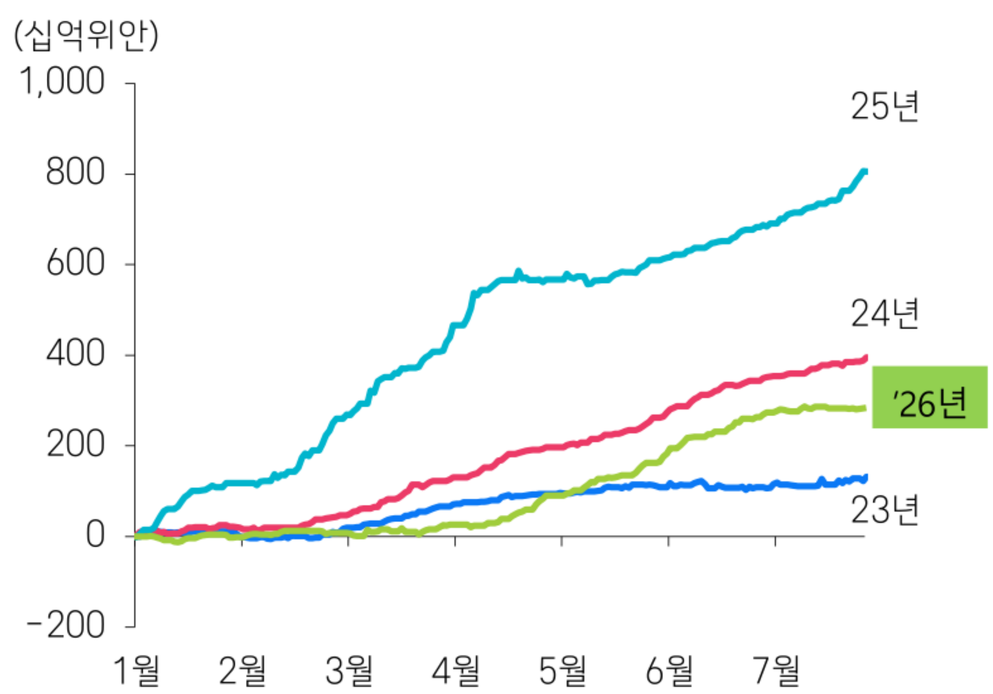
참고: '26년 7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과창판, 중국 시총 3위 주식시장으로 부상 중



참고: '26년 8월 3일 종가 기준
자료: Wind

7월 본토자금, 홍콩시장 순매수 다소 정체



참고: '26년 7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과창판(STAR 50) IPO List

기업명	상장시점	기업가치 (십억위안)	업종	비고
Hengyunchang (688785)	26년 1.16	15.2	전자부품	과창판 연중 최고 발행가 기록
Dianke Lantian (688818)	26년 1.30	78.2	항공전자	상장 첫날 +596% 기록
Yisiveye (688816)	26년 2.2	5.0	AI 검사장비	AI 3D 검사장비 업체
SeeYa Technology (688781)	26년 3.16	35.9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XR, AR 핵심소재, 글로벌 2위 업체
Taijin New energy (688813)	26년 3.20	15.2	신소재	4~6마이크론 극박 동박 생산 1위
Youyan composite (688811)	26년 3.30	10.4	소재	국가 전략 소재기업
Shenghe JingMicro (688820)	26년 4.9	216.9	반도체 패키지	'26년 상반기 과창판 최대 IPO, 상장 첫날 400% 급등
Lianxun instruments (688808)	26년 4.14	166.7	반도체 계측	시총 2천억 위안 돌파
*CXMT (688825)	26년 7.27	3,678	DRAM	중국 1위 DRAM 업체 사상 2위급 대형 IPO
Unitree	26. 8.	42	휴머노이드	A주 최초 휴머노이드 기업 상장 '25년 영업이익률 14.6%
Mini Max	상장준비 공식화	140	대형언어모델	중국 주요 AI 모델 기업 '홍콩 상장 공개청약 1,837배 초과
*Land space	26.3Q	75	우주항공	재사용 로켓 제작 75억 위안 조달 목표
쿤룬 칩	26.3Q	21	반도체	바이두의 반도체 사업, 바이두 지분 약 59%. 26년 1월 상장신청서 제출
*YMTC	26.2H	3조 위안 이상	NAND	중국 낸드 1위 업체, 25.4Q 글로벌 M/S 11%
Enflame	26.2H	20.5	AI GPU	Tencent가 최대주주 (지분율 약 20%인 AI GPU 업체)

참고: 상장기업 기업가치는 '26년 7월말 종가 기준
자료: 언론보도, Wind,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